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연구실 안전사고 대폭 줄일수 있어

- 최근 6년간 사고건수 2.3배 증가 -
- 사고 원인 95% 연구자의 안전의식 및 부주의 때문 -
- 안전관련 교육은 40%이상 미준수, 연구기관이 가장 낮아 -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사고 보고 및 사고 유형별 현황 및 안전관련 정기 교육 및 훈련 현황”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총 사고 건수는 678건, 2007년에 비해 최대 3.4배 사고가 증가함
연도별로 발생 건수를 보면, 2007년 46건, 2008년 98건, 2009년 140건, 2010년 129건, 2011년 157건, 2012년 108건 발생함. 사고 원인은 95%가 연구자의 안전의식 및 부주의 때문에 발생해 안전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전관련 교육은 40%이상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교육 미준수 비율은 연구기관 47.3%, 대학은 41.7%, 기업연구소는 41.3% 순으로 연구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R&D 투자가 늘어나고 신물질 창출, 융합연구 등 창의적·모험적 연구가 많아질수록 연구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져 연구실 안전 문제는 안정적 연구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연구실에 연구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교육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 민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미래부 내 안전담당 부서의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든 이 두가지 사항을 병행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

〈 안전 관련 정기교육 및 훈련 현황(기존 연구활동 종사자) 〉

(단위 : 기관수)

구 분	대 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1시간/월 미만	63	(19.0%)	16	(8.8%)	3	(4.0%)
1시간/월	99	(30.0%)	38	(20.9%)	15	(20.0%)
2시간/월	23	(6.9%)	33	(18.1%)	24	(32.0%)
3시간/월 이상	8	(2.4%)	9	(4.9%)	2	(2.7%)
소계	193	(58.3%)	96	(52.7%)	44	(58.7%)
미 실시	103	(31.1%)	35	(19.3%)	5	(6.7%)
무응답	35	(10.6%)	51	(28.0%)	26	(34.6%)
합계	331	100%	182	100%	75	100%

※ 출처 :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 최근 6년간 연구실사고 보고 건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고건수	46	98	140	129	157	108	678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08~12년도 5년간 연구실 사고 원인(평균) 〉

유형	기계/기구 사용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미착용	위험물취급 부주의	기타
비율	42%	25%	17%	11%	5%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